

玉所 權變과 18세기 가족문화

박 영 민*

- I. 서론
- II. 소실의 현실과 가부장제의 명분
- III. 옥소의 일상과 嫡庶 관계
- IV. 분재를 통해 본 적서 가족 문화
- V. 마무리

국문초록

본 연구는 玉所 權變(1671-1759)의 가문을 통해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와 가족문화의 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옥소가 생존하였던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가부장제가 嫡長子中心으로 硬化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옥소 가문을 살펴보면, 과연 이 시기 조선사회의 가부장제가 적장자중심 일변도였던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옥소는 자신이 사후에 묻힐 자리에 초취부인과 재취부인의 자리는 두었으나 소실의 자리는 두지 않았다. 또 적자의 자손에게 가문을 일으킬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옥소 집안에서 소실과 소실 소생들을 대하는 방향은 적장자와 분명한 차별을 두면서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ympark@korea.ac.kr

가부장제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가문의 일원으로 이끌었다. 옥소는 소실 이씨와 60여 년을 함께 하였고 재취부인 조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약 30여 년을 소실 이씨와 함께 하였다. 또 옥소는 노년에 서자인 善性과 서손인 信應에 의지하는 바가 매우 컸다. 그래서 분재를 할 때에도 선성과 신응에게 그들의 효도와 재능을 인정하며 서책, 예술품, 전답을 나누어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17세기 중엽 이후 18세기 중엽까지의 조선사회의 가부장제, 가족문화의 실상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가문 내부의 다양한 문화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옥소 가문의 가족 관계를 통해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저변에 다양한 가족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주목하는 계기를 열고자 하였다.

◆ 주제어

옥소, 권섭, 권선성, 권신응, 가부장제, 가족문화, 소실, 서자, 적장자중심, 분제

I. 서론

본 연구는 玉所 權燮(1671-1759)과 그의 문집 『玉所稿』¹⁾를 통해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와 가족문화의 변모 양상에 관한 해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옥소가 생존하였던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를 조선시대의 가부장제, 가족문화에 주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 주요 논지는 이 시기에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家門中心, 嫡長子中心으로 硬化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성리학의 경화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성리학의 경화를 이끈 핵심 인물은 宋時烈이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전개된 禮論이 조선시대의 가부장제를 가문중심, 적장자중심으로 이끌었고 그 예론이 그의 가문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천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17세기 중엽부터 경화되었다는 것이다.

우암 송시열의 주변 인물에는 옥소의 백부인 權尙夏 가문도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옥소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백부 권상하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뿐만 아니라 옥소는 장성한 이후에도 백부 권상하에 대한 존경과 신뢰, 의지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표현하였다. 그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에 늘 백부의 조언을 구하였고, 백부의 말과 행동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는 것은 『옥소고』 전반에 잘 나타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옥소 역시 우암 송시열에서 권상하로 이어지는 禮學의 자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런데 『옥소고』를 보면, 과연 조선사회의 가부장제가 17세기 중엽부

1) 본고에서 인용한 『玉所稿』는 문경본과 제천본을 합편한 영인본이다.(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玉所稿』, 다운샘, 2007.)

2) 지금까지의 옥소 권섭 연구는 생애, 학문, 문학, 교유관계, 여행, 음악, 회화, 복식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옥소의 가족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이창희 외, 『18세기 예술 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이창희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강혜선, 「옥소 권섭의 기행시문 연구」, 『한국한서연구』 18, 한국한서학회, 2010;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한국고전연구』 27, 2013 등 참조.)

터 18세기 중엽까지 적장자중심 일변도로 경화되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散錄>을 보면, 옥소와 그의 직계 준비속 남성들이 소실을 들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문화였던 듯하다.³⁾ 옥소 역시 소실을 들었다. 그런데 옥소가 소실과 소실 소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유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옥소의 태도는 그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옥소는 소실과 소실 소생들을 대하는 문제에서도 늘 백부 권상하에게 의견을 물었고 그의 대답을 자신의 행동의 근거로 삼았다. 권상하 집안에서 소실과 소실 소생들을 대하는 방향은 적장자와 분명한 차별을 두면서도 가부장제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가문의 일원으로 이끌었다. 옥소의 물음에 대한 권상하의 대답은 옥소가 바라던 방향일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17세기 중엽 이후 성리학, 예학의 모범으로 추앙되었던 권상하 가문에서 있었던 실제 삶을 적장자중심 일변도였다고 폐쇄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그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양한 가족문화가 기저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17세기 중엽 이후 18세기 중엽까지의 조선사회의 가부장제, 가족문화의 실상에도 제대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각 가문 내부의 다양한 문화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옥소와 소실, 옥소와 소실 소생들의 가족 관계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가문중심, 적장자중심 일변도로 고착되었다는 담론 아래에서 벌어지

3) 權燮, 『玉所稿』, <散錄>, “我高祖兄弟二人, 我曾祖有弟一人妹二人, 而皆無子女. 我祖考獨身無一妹, 而有庶第二人. 我先君兄弟三人姊妹二人, 我伯父有子一人庶子二人庶女一人, 我先君有子二人女一人, 我季父有子三人女一人庶子三人庶女三人. 我從兄有子二人女二人, 伯姪有一子四女, 季姪有一子五女, 孫男二人女二人. 我從弟一無子女, 一有四女, 一有三女. 我弟無子女, 而我獨有子孫, 竝曾孫而十五人, 外曾孫五人, 子孫婦七人, 子孫壻五人, 內外女孫十二人, 凡四十四人, 可謂福華於我. 此何故也?” 본고에서 인용하는 <散錄>은 『이창희·장정수 역, 『散錄 역주(가칭)』을 참고하였고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散錄> 연구는 장정수, 「옥소산록(玉所散錄)」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참조.

고 있었던 미세하고 다양한 실제 흐름을 주목하는 계기를 열고자 한다.

II. 소설의 현실과 가부장제의 명분

1. 옥소의 혼인과 소설 이씨

옥소는 25세이던 1695년 초취부인 이씨(1671-1695)와 사별하고, 재취부인 조씨(1678-1729)를 맞이하기 전에 소설 李氏(1682-1756)를 먼저 맞이하였다. 1696년 옥소의 나이 26세, 소설 이씨의 나이 15세의 일이다. 26세의 젊은 옥소가 喪妻를 하고 바로 다음 해에 재취부인을 맞이하기도 전에 소설을 먼저 들었다는 것은 당시 그의 혼인에 모종의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 옥소가 쓴 <自述年紀>와 <壙誌>를 보면, 소설 이씨는 중종의 4대손인 宗室 帶原君 李光胤의 딸인데, 親命을 얻지 못해 건줄을 받들지 못하다가, 친명을 얻은 후 늦게 아들 善性(1712-?) 하나를 낳았다고 하였다.⁴⁾ 소설 이씨가 선성을 낳은 것이 1712년이니, 그녀는 소설이 되고 난 뒤 16년 만인 31세에 출산을 하였다. 소설 이씨 소생은 선성 하나뿐이다. “친명을 얻지 못하여 건줄을 받들지 못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도 옥소와 소설 이씨의 혼인에는 모종의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자세한 경위를 자료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옥소는 소설 이씨를 맞이한 이듬해인 1697년에 趙景昌⁵⁾의 딸을 재취부인으로 맞이하였다. 옥소의 나이 27세였다. 그런데 <散錄>을 보면, 옥

4) 權變, 『玉所稿』五, <自述年紀>, “丙子(1696), 卜姓而得於宗室帶原君之女, 生男善性於壬辰(1712)夏.”; 權變, 『玉所稿』, <壙誌>, “汝中廟四代孫中義大夫帶原君光胤之女, 十五歸于百趣翁, 未奉巾櫛多年, 而待親命, 晚有一子道性.”

5) 趙景昌은 永平縣令을 지냈다. 그의 사위는 金柱臣이고 김주신의 딸은 숙종의 세 번째 계비 仁元王后(1687~1757)이다. 즉 권섭은 인원왕후의 이모부, 권섭의 아들 德性和 딸들은 인원왕후와 이종사촌이 된다. 그러나 善性は 德性和 어머니가 다른 서자이다.

소가 재취부인 조씨를 맞이할 때에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조씨 집안보다 먼저 혼담이 오간 이씨 집안이 있었는데, 혼인을 반 달 정도 남겨두고 이씨 집안에서 혼인을 취소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때 옥소의 혼인은 외조부인 李世白이 진행하였는데 옥소는 <산록>에 왜 파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파혼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옥소 개인 혹은 옥소 집안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만약 옥소나 옥소 집안에 혼담이 깨질만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옥소 스스로 <산록>에 파혼 이야기를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상처난 뒤 趙正萬(1656-1739) 定而公이 외조부를 찾아와 “제게 사촌여 동생이 있는데 혼인을 시키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외조부께서 사양하시면서 “이미 집안인 이씨 덕으로 정해졌습니다.” 라고 하셨다. 하루는 내가 외조부를 뵈고 말씀드리기를 “지난밤의 꿈이 이상합니다. 기러기를 들고서 이 공택 문으로 들어갔더니 이 공이 水庫別檢이 되었고, 봉화의 하인들이 공을 맞이하기 위해 그 집 문 안쪽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후에 공문서가 왔는데 이 공이 빙관에 추천되어 낙점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외조부께서 웃시면서 “너는 얼음 조각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셨다. 혼인을 반 달 앞두고 이 공이 혼인을 물리겠다고 하자 외조부께서는 즉시 조공을 맞이하여 다시 혼약을 맺고 드디어 혼례를 거행하였다. 이 공은 후에 봉화 현감이 되었다가 돌아가셨다.⁶⁾

당시 이 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1695년에 李海朝(1660~1711)가 水庫別檢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694년 빙고별검에 제수되었고 1697년 의금부도사, 형조좌랑, 용궁현감으로 이동하였다. 그렇다면 옥소가 초취부인 이씨를 잃은 1695년, 소실을 들인 1696년, 즉 재취를 논의하던 즈음에 이해조는 빙고별검으로 있었다. 이해조는 증조부 李廷龜, 조부 李明漢, 부친 李一相 등 3대

6) 權燮, 『玉所稿』, <散錄>, “余喪偶後, 趙公定而來我外王考曰, ‘有從妹, 願結親.’ 王考謝曰, ‘已定於李之老家矣.’ 一日余往拜外王考曰, ‘夜夢異矣. 執雁而入李門, 李為水庫別檢, 而奉化下人, 以新延, 多在其門內外矣.’ 俄政眼來, 李擬冰官而受點矣. 王考笑曰, ‘汝將飽嚼水片矣.’ 臨婚隔半月, 而李乃退托, 王考邀趙公, 更約之, 遂行禮. 李後為奉化縣監而死.”

가 대제학을 지낸 명문가의 자제이다. 그는 1681년(숙종 7)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1689년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벼슬을 단념하였다가 1694년 인현왕후가 복위된 그 해에 빙고별검이 되었다. 즉 이해조는 장희빈을 반대하고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숙종에게 저항하던 옥소 집안 및 서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인물이었다. 또 옥소 주변 인물들과 이해조의 친분도 확인된다. 옥소와 친분이 깊었던 金昌翁은 이해조를 뛰어난 재주와 문장을 지닌 천재라고 격찬하였고 이해조 사후 그의 시문을 刪定하였다. 이에 이씨 집안이 곧 이해조 집안으로 추정된다.⁷⁾

그렇다면 옥소 집안과 이해조 집안은 혼담이 깨진 뒤에도 나쁜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해조는 1702년에 알성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그때 알성문과의 讀卷官이 바로 옥소의 외조부 이세백이었다. 혼담을 주선했던 외조부 이세백이 혼담이 깨진 몇 년 뒤에 문과 판독관으로 이해조를 선발하였다는 점은 두 집안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옥소의 외삼촌인 李宜顯도 이해조 사후에 그의 묘지명을 썼다. 그렇다면 두 집안의 혼담이 깨진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로 이해조의 형인 李成朝(1648-1696)의 喪을 들 수 있을 듯하다.⁸⁾ 이성조는 이일상의 장남이자 이해조의 만형으로 집안의 혼담이 오갔을 즈음인 1696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성조가 세상을 떠나자 이해조가 만형의 喪을 이유로 혼담을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집안에 喪이 있어 혼담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누구도 허물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후에도 두 집안 관계도 멀어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⁹⁾

7) 이해조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散錄>에서는 이씨가 봉화현감을 지냈다고 하였는데, 이해조가 봉화현감을 지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해조가 문경과 가까운 용궁현감을 지냈다는 점, 옥소도 용궁을 여행하였다는 점, 이성조가 예천군수를 지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8) 아버지 李一相은 1660년 이해조가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생몰년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9) 李宜顯, 『陶菴集』 卷33, 「兪正李公墓碣」. 이성조는 1673년 司馬試에 입격하였는데 숙종 즉위 후 楊州 雙樹村에 은거하였다가 1680년(숙종 6) 정세가 바뀌자 전설사별

이씨 집안과의 혼담이 깨진 직후 외조부 이세백은 조씨 집안과 다시 혼담을 진행하였다. 사실 조씨 집안은 먼저 옥소와의 혼인을 청하였으나 이미 이씨 집안과 혼약을 맺었기에 거절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씨 집안과 혼담이 깨진 직후 외조부는 조씨 집안과 혼사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옥소는 소실 이씨를 맞이하고, 재취부인 조씨를 맞이하는 혼인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사건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실 이씨의 일생은 옥소가 쓴 <壙誌>를 통해 일부 살펴볼 수 있다. 그녀가 종실의 자손으로 옥소의 소실이 되었고, 소실이 된지 12년이 지난 31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그녀는 선성 하나를 낳았지만, 선성이 아들 다섯과 딸 셋을 낳아 자손은 다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대는 증종의 4대손 중의대부 대원군 광윤의 따님으로, 15세에 나 백취옹에게 시집을 왔으나 여러 해 동안 건줄을 받들지 못하고 부모님의 명을 기다리다가 뒤늦게 아들 道性 하나를 낳았다. 도성은 목사 송규현의 사위가 되어 신응·운옹·회응·수옹·구옹 등 손자 다섯과 손녀 셋을 낳았고, 또 증손자 넷과 증손녀 하나가 있다. 나는 지금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증이조참판 권상명의 아들이고, 사헌부집의 증영의정 권격의 손자이며, 좌의정 충정공 이세백의 외손자이다.

그대는 나를 따라 오가면서 서울과 시골 생활을 반반씩 하였고, 문경의 화지동에서 늙어 75세가 되던 1756년 6월 25일에 죽으니, 그대의 삶은 ‘살아서는 순리대로 살았고 죽어서는 편안하리라’고 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죽기 며칠 전, 내가 장손 祚應의 초상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평생 중병을 끼고 살아서 언제 죽을지 모를 듯했는데 지금 파과노인이 홀연히 다시 살아나 깨끗하게 식사도 잘하니, 우리 노인을 봉양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운명이 공궁해져서 ‘8월에는 반드시 강가에 나갈 것’이라고 하더니 9월에 끝내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대의 장지는 신응 처의 산소 뒤에 있으며, 艮坐坎向이다. 화지는 내가 옥소산에 마련해둔 무덤에서 하루 이틀 거리로 서로 마주 보이는 곳이다.

아! 그대는 현숙한 자질과 자애로운 성품을 지니고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식견을 갖추어, 시어머니(1652-1712)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적처의 연민과

검, 의금부도사, 호조정랑, 금산군수, 예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91년 己巳換局에 의해 서인들이 대거 파직되고 유배되었을 때에는 그도 定州로 유배되었다.

위로를 받았으며, 60년 동안 내 곁을 지키면서 조금도 거슬림이 없었다. 그대는 내가 시를 읊조리고 글을 짓는 것을 좋아하여, 매번 곁에 앉아서 풀이하기를 좋아하였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듣지 않았다. 내가 때로 집안의 작은 일 때문에 남과 다투기라도 하면, 그대는 항상 “어찌 젊은 날의 명성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하고, 내가 간혹 얼굴색이 변하면서 큰소리 내는 일이 있더라도 하면, 그대는 항상 “어찌 젊은 날의 공부와는 반대로 하십니까.”라고 하였다. 그대는 지금 그대가 원하던 대로 나보다 먼저 죽어, 자손들이 줄지어 서서 앞에서 곡을 하고 있구나. 나의 글이 날날이 천고토록 무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도 기쁘겠지. 명(銘)에 이르기를,

사람이 고하로 나뉘지 아니함은 뜻이 같아서이고
 땅이 멀고 가까움이 없음은 낮이 그 가운데 있어서라네
 승정후 재명자(1756년) 가을날 백취옹이 쓰다.¹⁰⁾

그녀가 어떻게 문경 화지동에 정착하였는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녀는 옥소를 따라 서울과 시골에서 반반씩 살다가, 문경의 화지동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75세의 생을 마치고 그곳에 묻혔다. 옥소는 그녀가 죽기 며칠 전의 일화를 기록하며 그녀가 평소 건강이 나빴지만 생에 대한 의욕이 강하였는데, 그녀의 생에 대한 의욕은 온전히 옥소 자신을 내조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녀는 평생 증병을 끼고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를 듯 하였는데도 병세가 조금 좋아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10) 權嬾, 『玉所稿』五, <壙誌>, “汝中廟四代孫中義大夫帶原君光胤之女, 十五歸于百趣翁, 未奉巾櫛多年, 而待親命, 晚有一子道性, 而爲牧使宋奎炫婿, 生孫信應運應禧應脩應久應五人女三人, 又有曾孫男四人女一人. 翁方爲嘉義同中樞, 贈吏曹參判權公之子, 司憲府執義贈領議政之孫, 左議政忠正李公之外孫. 汝隨翁來去, 半京鄉居, 聞慶之華支洞老, 今七十五而死於丙子六月廿五之日, 斯順寧而無慊. 未死前幾日, 見翁哭長孫而歸曰, “一生抱重病, 謂朝夕死, 今幡幡老而忽蘇, 慳而健飯, 足以奉我翁而助.” 身命之窮厄, 必以八月出江上, 九月竟入地深深憑哉. 汝之葬在信應妻後, 艮坐之坎. 華支與翁之玉所山壽藏, 一二日而相望. 噫. 汝淑質慈性, 懿言慧識, 被恩愛於尊姑, 荷女君之隱恤, 得以六十年左右翁而無忤. 汝喜翁之詠詩題文, 每坐傍而悅解, 不以餘事聞於翁. 翁或以家小之事干於人, 汝必曰, ‘何不思少日聲名’, 翁或有大聲色事, 汝必曰, ‘何放倒少日工夫.’ 汝今先我死如其願, 而子孫羅列而哭於前. 翁之文又星星不沫於千古之室, 汝心必有喜. 銘曰, ‘人非高下志則同, 地無遠邇魂在中.’ 崇禎後再丙子秋日, 百趣翁書.”

“우리 노인을 봉양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도 두 달 뒤에는 강가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였다. 그녀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한 것은 자신이 86세의 노년의 옥소를 옆에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결국 옥소보다 3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소실 이씨가 늙도록 옥소 곁에서 봉양한 것은 음식과 의복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년의 옥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¹¹⁾ 젊은 날의 옥소는 말과 행동에서 반듯하고 정의로웠다고 자부하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졌고 또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처음 마음먹은 뜻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소실 이씨는 옥소의 초심을 일깨워주었고, 옥소의 말과 행동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어렸을 때 말을 하거나 일을 하면 부형들께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매번 '어르신께서 미처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니 괴이하다. 늙은 첩이 말하기를 “제가 평생토록 보아 온 공의 모습은 오는 것은 받지만 오지 않는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경으로 이사할 때 여러 읍에서 도와주려고 보내온 물품들을 다 거절하고 물리친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그런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에 대해 지나치게 깨끗하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집안의 소소한 일로 인하여 때때로 남에게 먼저 요구하니 앞뒤의 행위가 다르십니다.” 라고 하였다. 스스로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숨고 싶다. 아, 늙도록 지조를 지키는 것이 어렵구나.¹²⁾

전에 내가 수령 趙定而의 집에서 충문공 이 정승을 만났었다. 이 정승이 말하기를 “그대의 문장과 재능으로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하구려.” 라고 하였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공께서는 무슨 일을 경영하고 무슨 사업을 하시고자 하기에 저를 권면하고자 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金有鉉을 영의정으

11) 이 점에 대해서는 박요순, 『옥소 권첩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86쪽에서도 밝혔다.

12) 權燮, 『玉所稿』, <散錄>, “余曰少時發言行事, 一不見非於父兄, 又為世人人之所信服. 今則兒輩亦每有夫子未出正之意, 可怪. 老妾曰, ‘一生見公之, 來則受之, 不來則不相求. 江景搬移時, 目見歷路諸邑之助, 皆謝却之. 惟其然故人稱其太清介, 今則為家小情私, 時時先干於人, 前後事果不同矣.’ 自返, 不覺愧伏不已. 嗚乎, 保晚節難矣.”

로 삼고, 方震爰를 좌의정으로 삼고, 卞三彬을 우의정으로 삼으면 좋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충문공이 농담으로 응대하며 웃고 말았다. 지금 이 일을 생각해 보니 한평생 내가 세상과 어긋난 것은 이러한 口業이 빌미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늙은 첩과 마주 앉아 있을 때 첩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듣고 웃으면서 이 일을 기록한다.¹³⁾

옥소는 자신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로 인해 세상의 평가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¹⁴⁾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의 어긋남,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때 옥소를 곁에서 지켜본 소실이 그가 변화하였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서야 옥소는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소실은 옥소의 옳고 그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옥소의 말과 행동을 반성하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을 자처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실 이씨는 옥소가 시문을 짓는 것을 좋아하였고, 옥소 옆에서 그 시문을 읽고 풀이하기를 좋아하였다. 여기서 그녀가 한문을 아는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옥소가 그녀를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식견을 갖춘 여성으로 표현한 것은 그녀가 시문을 좋아하였다는 점과도 연결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경 화지의 풍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소는 1714년 45세 되던 해에 모친의 3년상을 마치고 한성을 떠나 청풍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나 1723년 54세에 백부가 계시던 황강리로 이주하였다. 이때부터 옥소는 청풍, 황강, 소실 이씨가 살

13) 權變, 『玉所稿』, <歎錄>, “余曾逢見忠文李相公於趙令定而家, 公曰, ‘以君之詞翰才局, 不見售於世, 可惜.’ 余笑曰, ‘公有何經濟有何事業, 而又欲勸人耶? 吾意則以金有鉉為領相, 方震爰為左相, 卞三彬為右相足矣.’ 公以戲語應之, 笑而止, 到今思之, 一生齟齬於世, 未必不崇於此等口業. 偶與老妾對坐, 聽其提說此事, 笑而記之.”

14) 옥소에게 이런 충고를 해 주는 인물로는 백부인 權尙夏, 외숙부인 이의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권상하는 옥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聖學輯要』를 읽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는 습성을 면치 못하니, 栗翁의 말에 읽는 것은 聖賢의 글인데 하는 것은 世俗의 일이라고 한 것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충고를 하였다.(權尙夏, 『寒水齋集』, <答變 六月>, “齋洞所白事悉之, 吾意士子如處女, 爲他人作媒, 豈是道理? 卽今洛中風習, 馳騁於聲利場中, 不復見恬靜自守之人, 汝留心古書, 見讀輯要, 而反不免此習. 栗翁之言曰所讀者聖賢之書, 而所爲者世俗之事, 正指此也. 然汝亦不自知覺而然, 讀栗翁書漸熟, 則必無此患, 唯此之疾耳.”)

고 있던 문경 화지동 일대를 근거지로 생활하였다. 만년에는 청풍과 70여 리 떨어진 화지동을 더욱 자주 왕래하면서 생활하였다. 옥소는 인생의 반 이상을 화지장을 왕래하며 소실 이씨, 서자, 서손과 함께 시문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제화시를 지으며 노년을 보냈다. 그들의 집안 분위기는 문경 화지의 문화를 보다 융성하게 이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옥소가 시문을 지으면 옆에서 그 시문을 풀이하고 감상하는 소실도 있었다. 소실 이씨는 남편과 아들과 손자가 문경 화지의 문화를 윤택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호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옥소는 銘에서 “사람이 고하로 나뉘지 아니함은 뜻이 같아서”라고 기록하였다. 그녀가 비록 소실이었지만 자신과 “뜻이 같은” 동반자였음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죽어 두 사람이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졌지만 넋이 함께 있으니 땅의 멀고 가까움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하였다.

身名天地半沈浮 천지간의 이 몸, 부침이 반이더니
鞍馬西南一去留 안장 실은 말이 서남쪽으로 한번 가더니 머무네
怪似僧無妻子室 괴이하기가 처자식 없는 중과 같았으니
何知仙有月星樓 어찌 월성루의 신선을 알았으리오
詩書白首緣非悔 시서 짓는 노인의 인연을 후회하지 아니하니
猿鶴青山分所悠 원숭이와 학과 노니는 은자의 분수에 유유자적하네
可笑尊中紅珀酒 웃을만하구나, 술동이의 붉은 호박주
與開黃菊駐深秋¹⁵⁾ 노란 국화 핀 깊은 가을에 말 세우네

옥소가 첩의 웃음소리를 듣고 지은 시이다. 옥소는 자신의 인생의 반은 부침이 심하였고, 처자식이 없는 중과 같은 신세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선 같은 생활이 있었다. 그래서 시 짓고 글씨 쓰는 노인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고, 원숭이나 학과 함께 노니는 산속의 삶에도 유유자적할 수 있었다. 가을 국화가 깊어가는 때에 호박 빛깔이 선명한

15) 權燮, 『玉所稿』十二, <得妾笑題>. 이 시는 문경본에만 있고 체천본에는 없다.

좋은 술을 빚어내고 첩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술을 빚어내며 웃는 첩을 보고 그도 웃을 수 있었다. 옥소는 첩과 함께 하는 삶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또 옥소는 소실 이씨에 대해, “현숙한 자질과 자애로운 성품을 지니고,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식견을 갖추어, 시어머니에게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적처의 연민과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녀가 자질, 성품, 말, 식견을 두루 갖추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적처와 잘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옥소는 소실 이씨에 대해 “자신과 60년을 함께 하였는데 조금도 거슬림이 없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옥소의 적서 집안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2. 옥소와 소실 이씨의 거리

옥소는 소실 이씨와 60년을 함께 살았다, 재취부인 조씨는 소실 이씨와 한 해 차이로 혼인을 하였지만 1729년에 소실 이씨보다 27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옥소는 조씨가 성장할 때에 사고가 있어 이십 세가 되어 서야 자신에게 시집을 왔고 늦게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에 유리하지 않은 몸이었기에 사내아이 덕성과 군수 김한방에게 시집간 딸 하나를 낳았다고 하였다. 더구나 조씨는 하나뿐인 아들이 1719년에 옥소의 동생 권영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자,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 결국 아들을 따라가서 살다가 병이 깊어졌다. 옥소가 아들과 조씨 부인을 만나러 왕래를 자주 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옥소의 곁에서 옥소와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은 소실 이씨였다.¹⁶⁾ 그리하여 옥소는 소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의지할 곳이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16) 權變, 『玉所稿』四, <告亡失趙恭人文>, “嗚呼哀哉. 婦人之過回甲, 是稱上壽, 鄉今過回甲而又十年, 倏然而逝, 鄉何憾而我何悼也. 嗚呼, 以鄉之未忍割愛遠離, 逐子西征, 疾病浸淹. 與我離強半, 則老我之身, 每每自往視而不可已, 前年十月之見, 爲千古之永訣, 嗚呼哀哉.” 이외에도 옥소는 조씨를 위해 <繼配趙氏墓誌>(權變, 『玉所稿』五)도 썼다.

같이 토로하고 있다.

늙은 노비는 옆방에 거처하면서 나의 시중을 들었고, 장손은 아침저녁으로 염려하며 나를 돌보아 주었는데 지금 다 죽었다. 화지동에 가서 늙은 첩에게 의지했으나 늙은 첩도 죽었다. 곤궁하고 늙은 이 한 몸 의탁할 곳이 없는데 옥소산 신령도 냉담하여 나를 맞이할 생각이 없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곡을 해서도 안되니 올면 여인네 짓거리에 가깝다. 때때로 길게 읊조리고 짧게 읊조리다 보니 읊조림이 끊이지 않는다.¹⁷⁾

옥소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데 신령도 냉담하여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외로움을 드러낸다. 옥소가 나이 들어서 소실에게 크게 의지하였음이 잘 드러난다. 옥소가 생전에 소실 이씨와 허물없이 지냈음은 다음 시에서도 잘 보인다. 옥소는 자신의 어지럽고 분분한 감정의 변화를 소실 이씨에게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浩浩泣沱沱 호탕하게 노래하다가 주루룩 눈물 흘리니
事故沄沄無奈何 번고가 어지러워 어찌할 수 없네
我不知人又不知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何泣沱沱浩浩歌 어찌하여 주루룩 눈물 흘리고 호탕하게 노래하는가
長歌短歌泣且歌 장가를 부르다가 단가를, 울다가 노래하다가
就睡朦朦都不知 잠자리에 들어도 몽롱하여 도무지 모르겠네
朦朦睡酣復起坐 몽롱한 채 달게 자고 일어나 앉아도
依舊人間歌泣時 여전히 인간세상은 노래하고 울 때라네
如何叔建別有樂 어찌하여 숙건에게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가
白茅包纒紅珀醉 흰 띠풀로 노루를 싸고 붉은 호박색 술에 취하네
我亦高歌仍大笑 나도 높이 노래 부르고 크게 웃으며
歸去凌江白雲裡¹⁸⁾ 능강동 흰 구름 속으로 돌아가리라

17) 權燮, 『玉所稿』, <散錄內篇>3, “老婢在旁室而該我, 長孫慮早暮而護我, 今皆死矣. 歸依老妾於花枝, 老妾又死. 窮老一身, 靡所依托, 玉所山靈又落落無相要之意, 其將奈何? 哭則不可, 泣近婦人. 時時長哦短咏, 哦咏不已.”

18) 權燮, 『玉所稿』一, <以雪頭霜髯, 求小寅緣, 而東敗西喪, 聞叔建有佳期, 不勝羨歎而自悲, 夜對老妾話, 此一胡盧, 仍就枕大睡. 睡起思之, 又不勝切痛, 又與老妾對坐一大笑,

옥소는 이 시에 “하얗게 센 머리와 수염으로 자그마한 인연을 구하였으나 동쪽에서 패하고 서쪽에서도 잃어버렸다. 그런데 숙건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부러움과 감탄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슬퍼하다가 밤에 늙은 첩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한번 웃고는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 잘 잤다. 자고 일어나 생각하니 또 절통함을 이기지 못하겠기에 또 늙은 첩과 마주 앉아 한번 크게 웃고 이 시를 지었으니 숙건에게 가서 보여주어야겠다.”라는 긴 제목을 붙였다.

숙건은 邊栲(1699~?)으로 邊震長의 아들이다. “흰 띠풀로 노루를 쓴다”는 표현으로 보아 숙건에게 아내를 얻는 새로운 인연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詩經』〈野有死麕〉에 나오는 “뜰에 죽은 노루를 흰 띠풀로 썼네. 봄이 그리운 아가씨를 길사가 유혹했네(野有死麕, 白茅包之. 有女懷春, 吉士誘之.)”는 구절은 남자가 예법을 갖추어서 여자에게 구애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아마 옥소가 조씨부인을 잃고 삼취부인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미 늙고 가난한 상황이라 일이 여의치 않았는데 숙건이 새로 부인을 맞이하게 되자 부러운 마음을 적나라하게 털어놓은 듯하다. 옥소가 달게 자고 일어나도 생각하면 절통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고, 이 마음을 시로 써서 숙건에게 가서 보여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숙건과 매우 소탈한 우정을 나누었던 듯하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소실에게도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모습을 보아 옥소가 화지장에서 소실 이씨를 얼마나 편하게 대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¹⁹⁾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소실 이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녀가 처라면 옥소가 이런 이

題有此詩, 欲去示叔建.>

19) 여기서 옥소가 구한 “자그마한 인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옥소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으나 변순은 1738년(영조 14) 문과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이를 부러워한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 또 숙건이 일찍이 장릉을 지나다가 시를 지으니 재상 趙顯命이 시를 듣고 기이하다고 여겨 寢郎으로 천거한 일을 부러워한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옥소는 시를 좋아하고 잘 짓는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나 천거를 받지 못하였는데 숙건은 재상에게 시를 잘 짓는다는 인정을 받고 벼슬도 하였고, 이 일에 대해 성해웅이 ‘태평성대에 재주 있는 이를 아끼는 풍조’라고 칭찬한 일도 있었던 것이다.

야기를 이렇듯 적나라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늙은 첩의 꿈 이야기를 듣다(聽老妾說夢)」라는 시이다. 옥소가 꿈을 꾸 내용을 동생 권영과 서손 신응에게 그림으로 그리게 한 것은 이미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²⁰⁾ 옥소에게 꿈은 그를 새로운 공간으로 인도하고 상상을 펼치게 해주는 특별한 매개체였다. 그런데 옥소는 소설과도 꿈이야기를 공유하였다. 소설이 꿈을 꾸 뒤 옥소에게 이야기를 하면 옥소는 그 내용을 시로 적었던 것이다.

淸曉老妾媿交魂 맑은 새벽에 노첩이 꿈인 듯 생시인 듯 잠을 자다가
仰視綺疏奇又奇 비단 창을 우러러 보니 기이하고 기이하였다네
明明在上赤赤臨 밝고 밝은 것이 위에서 붉게 임하더니
月貌團團人坐斯 둥글둥글 달 모양의 사람이 여기에 앉았다네
奇奇此事七夕見 기이하고 기이한 이 일 칠석날에 나타나더니
順性家兒來致辭 순성 집 아이가 와서 말을 하였다네
須臾闔闔太玲瓏 순식간에 열려 너무나 영롱한데
入窓琪花開滿枝 창으로 들어가니 기화가 가지에 가득 피었다네
遽然老妾大驚叫 불현 듯 노첩이 크게 놀라 소리지르며
急呼夫子出視之 남편을 급히 불러 나와 보게 하였다네
團團月貌彼何人 둥글둥글 달 모양 저 사람은 누구인가
遽取其花手中持 급히 꽃을 가져다가 손에 쥐었다네
呼來震應滿付與 진응을 불러 한가득 주려고
老妾奔趨狂似癡 노첩은 바보처럼 미친 듯 내달렸다네
云云此花是天定 이 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니
孰敢取之吾有兒 누가 감히 가져가나, 우리 아이가 있는데
吾兒已與此花生 우리 아이 이미 이 꽃과 함께 태어났으니
吾攬吾花吾不疑 내가 내 꽃을 잡았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네
然知震應或悵然 그러나 진응이 슬퍼할 줄 알았는데

20) <夢書>는 옥소가 16세부터 꾸었던 꿈을 기록하였다가 86세 무렵에 실경산수화 형식으로 옮겨 그린 것이다.(이창희 역주,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도서출판 다운샘, 2003 참조.) <夢書>의 그림은 權瑩(1678~1745)과 權信應이 이어서 그렸고, 권섭이 매 편마다 遊記를 기록하였다.(최호석, 「옥소고 소재 문화의 제작에 대한 연구」, 『역사민속학』 28, 2008 참조.)

喜孫同來在後隨 기쁘게 손자가 함께 와 뒤에서 따랐다네
 分其餘采略略贈 나머지 꽃송이를 나누어 조금씩 주니
 滿口英莢吞在效 입에 가득 영롱하게 삼켰다네
 同其夫子望天門 남편과 함께 천문을 바라보니
 碧落雲收光陸離 하늘에 구름 걷히고 빛이 땅에 찬란하였다네
 其人是帝是神仙 그 사람은 천제이고 신선인데
 恍惚之頃迷不知 황홀한 가운데 희미하여 알 수 없더라
 翻身七日是過旬 몸을 날린 7일에서 열흘이 지났는데
 赤蛇中春天啓時²¹⁾ 환하게 2월의 하늘이 열리는 때라네

소실 이씨가 백부 권상하의 적손인 진응과 서손인 순성을 위한 태몽을 꾸고 그 이야기를 옥소에게 들려주었고, 옥소가 그 내용을 묘사한 시이다. 소실 이씨의 꿈이 권상하 집안의 적자와 서자를 위한 태몽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소실 이씨가 옥소의 집안에서 경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옥소는 자신의 삶을 형식을 갖추어 기록할 때에는 처첩의 구분을 선명하게 하였다. 옥소는 1724년 54세에 <述懷詩序>, <自述年紀> 등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글을 여러 편 썼다. 그는 54년 동안 점점 가산이 기울어 결국 한양에서 전라도까지 많은 지역을 떠돌며 이사를 다녔다. 그러다가 54세가 되어 황강의 예전 살던 곳으로 돌아와 한천촌에 터를 가려 집을 짓고, 천남에 농장을 만들고 단구의 장호촌에 별장을 두었다. 그리고 백운동, 능강동을 얻어 緩急之計로 삼았다. 소실 이씨도 옥소와 함께 떠돌며 많은 고생을 하였다. 옥소는 <述懷詩序>에서 “좋은 곳 가려 사는 지혜가 없어 집안에 재앙이 미쳤네. 황급하게 전 가족을 이끌고 남북으로 오고갔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이 모기와 이가 깨무는 듯하네. 다만 병든 첩을 마주하고 한밤중에 벽을 돌며 서성이네. 막막한 천지간에 쓸쓸한 이 늙은 몸. 남은 생애 우러러 원하는 것은 백부와 숙부 강녕함이었네.”²²⁾라고 하여 가산이 무너져가는 어려운 삶을 소실 이

21) 權變, 『玉所稿』十二, <聽老妾說夢>. 이 시는 문경본에만 있고 제천본에는 없다.

22) 權變, 『玉所稿』五, <墓二>, <述懷詩序>, “一水上下, 又近門屏. 優遊詩禮 追慰先靈.

씨와 함께 겪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옥소는 “거사의 평생 친우는 안으로는 아내요 밖으로는 재문인데, 모두 저승으로 가서 아득하게 되었다.”²³⁾고 하였다. 그는 처첩에 관한 구분을 선명하게 하였다. 또 그는 60년을 함께 살며 마지막까지 함께 한 소실은 문경 화지에 따로 묻고, 자신은 한천의 묘소에 처인 이씨와 조씨 두 부인과 함께 묻혔다. 옥소가 소실 이씨의 묘에 대해 자신의 묘를 마련해 둔 옥소산과 서로 마주보이는 곳에 있었고, 거리로는 하루이틀 걸리는 곳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분명 소실 이씨는 옥소의 고향에 묻히지 못했다. 옥소는 <墓表陰記>에서 “백취옹은 두 부인과 단양구담의 옥소산 위 자좌의 언덕에 함께 묻혔다. 옹은 앞에 있고 두 부인은 뒤에 있으며 구덩이는 셋이나 봉분은 하나니 봉분이 마치 부정과 같다. 좌측에 비석 하나를 세우고 앞면에 ‘백취옹의 무덤’이라 썼고 우측에 ‘월성 이씨’, 좌측에 ‘가림 조씨’라고 썼으며 뒷면에는 내가 스스로 저술한 짧은 묘지명을 썼으니 이는 보잘 것 없고 미친한 내 성명 때문에 글을 잘하는 군자에게 누를 끼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 글을 실어서 그 장소를 기록한다. 仲房 아들 德性和 別房의 아들 道性(초명 선성) 등 여러 손자와 자질들은 내 뜻을 어기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따라야 할 것이다. 이씨 옆에는 별도로 작은 묘표를 세워라. 농암 김공께서 쓰신 글이 있으니 이씨에게 잘 어울린다.”²⁴⁾고 하였다. 또 그는 <自述墓銘>에서 “한 마음으로 한 구덩이에 든 이는 예로 맞은 어진 베필이요”²⁵⁾라 쓰거나, <又作>에서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친년토

智不擇處，鰥及階庭。全家勸勤，北奔南行。冷眼親懿，嘔膚蚊蟲。獨對病妾，繞壁三更。鬼實仇我，蠱毒終搜。乾坤漠漠，自首熒熒。殘生有仰，二父康寧。年年痛哭，山獄顏頰”

23) 權燮, 『玉所稿』五, <墓二>, <述懷詩序>, “居士之平生知己, 內有孺人, 外有載文, 今皆泉塗, 冥漠已矣, 何言.”

24) 權燮, 『玉所稿』五, <墓山二>, <墓表陰記>, “百趣翁與二夫人, 同葬於丹陽龜潭之玉所山上聚子坐之原. 翁在前, 二夫人在後, 三穴一封, 封之若斧庭. 左立一石, 前題曰百趣翁之塚, 右題月城李氏, 左題嘉林趙氏, 後只題自述小銘, 不欲以陋賤姓名, 累秉筆之君子. 下係此文以識其所, 使仲房子德性別房子道性孫輩群兄弟衆子姪, 一遵吾意而勿違. 李氏之傍, 別立短表, 有農岩金公文, 李氏多可書. 翁自述使弟瑩書之, 前面大字集顏魯公筆.”

록 함께 묻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²⁶⁾라고 쓴 글에서도 분명 소실 이씨를 배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옥소의 초취부인 경주이씨가 세상을 떠나자 백부인 권상하가 묘지명을 썼다.²⁷⁾ 이 해는 1732년 7월 11일이다. 권상하의 묘지명에 이어 옥소가 <追記>를 남겼는데 이 <추기>에서 옥소는 “元配 경주이씨를 제천에 장사지낸 지 34년 만에 그 묘를 단양 서쪽 옥소산 負坎之原으로 옮기고, 그 오른쪽을 비워두고 다른 날 隔灰之制를 기다린다.”²⁸⁾고 썼다. 隔灰之制는 관을 묻을 때 먼저 관이 앉힐 자리의 둘레를 石灰로 메우는 일이다. 옥소는 원배 이씨의 무덤 오른쪽을 자신의 사후 자리로 비워두고 관을 묻을 때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옥소는 이후에도 24년을 더 소실 이씨와 살았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의 자리를 늘 원배와 재취부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실제 원배 이씨와 살았던 기간은 10여 년에 불과하고 소실 이씨와 지낸 기간은 60여 년이다. 옥소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소실 이씨의 <壙誌>에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가 죽음 이후 묻힐 선산에는 초취부인과 재취부인의 자리만 있었고 소실 이씨의 자리는 없었다.

이렇게 소실 이씨의 현실과 가부장제의 명분 사이에는 그 거리가 선명하게 존재하였다. 평소 옥소의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소실 이씨가 가부장제의 경계를 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대면하였을까에 대해서는 짐작이 간다.

25) 權變, 『玉所稿』五, <墓山二>, <自述墓銘>, “同心同穴, 禮卽賢述.”

26) 權變, 『玉所稿』五, <墓山二>, <又作>, “夢卜而發天地秘, 何其異也. 依我父以連祖松柏之影, 何其幸也. 與同心賢媛而共千齡, 何其寧也. 山翠聳而水清漪, 居士之宜也. 可顯刻. 崇禎後某年某月某日, 玉所居士自述.”

27) 權變, 『玉所稿』五, <墓山二>, <有明朝鮮安東權變元配孺人慶州李氏墓誌銘>

28) 權變, 『玉所稿』五, <墓山二>, <追記>, “權變元配慶州李氏, 葬堤川三十四年, 而遷其墓於丹陽西之玉所山負坎之原, 虛其右, 以待他日隔灰之制.”

Ⅲ. 옥소의 일상과 嫡庶 관계

옥소의 妻妾 구분 논리는 嫡庶 구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述懷詩序>에서 “7남매를 낳았으나 지금 슬하에 있는 자식은 둘”이라고 하였다. 妻가 낳은 7남매 중 아들 하나와 딸 셋 4남매는 2세에서 7세 사이에 모두 죽었고, 성년이 되도록 자란 아이는 셋이었다. 그런데 맏아들 初性은 어보 위조 사건 연루되어 죽었고,²⁹⁾ 둘째 아들 德性은 1719년 아우 權瑩의 양자로 갔고, 딸은 金漢房에게 시집을 갔다. 결국 妻가 낳은 3남매도 옥소 곁에 없었고, 옥소 곁에 남은 아들은 庶子 善性뿐이었다. 권섭은 서자인 선성에게 노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옥소는 “일곱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다만 늙은 자신을 곁에서 지켜주는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할 때에는 서자도 기록하였다. “자식은 善性 하나가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적은 글들은 훗날 그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옥소는 이러한 정식의 글을 쓸 때 적서의 구별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런데 권상하(1641-1721)가 1700년에 권상명(?-1684)의 묘지를 쓰고 난 후, 1712년 이후에 <追記>를 하였는데, 그곳에는 “아들인 善性은 庶出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서자 선성을 기록한 것을 보면 1712년 이

29) 권섭의 장남 초성(異名 盡性)은 1722년에 충청도 석성현에서 御寶를 위조하고 심정보를 무고한 죄로 체포되어 추국을 받고 1723년 1월 24일에 伏誅되었다. 1723년 권진성은 국청에서 “심정보가 청풍 부사가 되었을 때 저의 어보를 위조한 죄가 발각되어 옥사가 이루어졌는데 死地에 빠졌기에 혐의를 품고 죽음 속에서 살길을 구할 계책으로 무고한 것이 實합니다.”라고 자복을 하였다. 이에 왕은 초성을 중죄인으로 보고 “不得時處斬하고 가산을 적몰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 사건 당시 권섭도 『조선왕조실록』 경종 3년의 기록에서 “그의 아버 權變은 虎妄하고 悖惡한데다 세력을 믿고 의지하여 不義한 일을 많이 행하였다. 부자가 한 가지로 악독하여 御寶를 위조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옥에 갇혔는데, 越獄하여 망명하고는 제멋대로 행동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였다.”는 평을 받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물론 이 평가가 당시 남인과 서인의 당쟁과 무관할 수는 없지만 어보를 위조하였다는 죄는 분명하기에 권초성의 사건은 권섭 집안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붙인 추기이다. 이의현(1669-1745)도 권섭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큰 누님의 묘지를 쓰며 “2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燮과 瑩이고 딸은 선비 黃埴에게 출가하였다. 섭은 참판 李世弼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初性을 낳았고 다시 현령 趙景昌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으니, 아들은 德性인데 장녀는 金漢鳳의 아내가 되었으며 차녀는 어리다. 또 서출인 아들 善性이 있다.”고 하였다.³⁰⁾ 옥소의 주변 인물들 특히 옥소와 밀접한 관계였던 권상하나 이의현 등은 서자 선성이 옥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던가를 밝히고자 하였던 듯하다.

옥소는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적서의 차별을 보였지만 일상에서는 서자에게 많이 의지하였고, 서자를 예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옥소가 서자 선성의 관례를 치루어 주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옥소는 서자 善性(1712-1784, 후에 道性으로 개명)이 성인이 되자 관례를 치루어 주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송시열, 권상하 계열의 “禮를 중시하는 문화”를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안고 살았던 옥소가 이 문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백부인 권상하에게서 해답을 찾았다. 그때 권상하는 웃으며 서열도 당연히 관례를 행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권상하가 웃으며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조카 옥소가 서자의 관례를 치루어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권상하에게도 명분과 근거가 있었다. 즉 관례의 의미가 성인으로서의 막중한 의무를 책임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근거로 우암 송시열이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행하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백부는 관례를 행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서열이 미천하기는 하지만 고을에서나 행세하는 풍헌과 약정이 서열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옥소에게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서열이 관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닌가를 백부 선생께 여쭙어보니, 선생

30) 李宜顯, 『陶谷集』, <伯姊孺人墓誌>, “有二男一女, 男燮瑩, 女適土人黃埴. 燮娶參判李世弼女, 生一男初性, 再娶縣令趙景昌女, 生一男二女, 男德性, 女爲金漢鳳妻, 次幼. 又有側出男善性.”

께서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관례는 성인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우는 것인데, 근래 대부분 행하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빈객을 많이 초대하고 음식을 푸짐하게 차릴 필요는 없다. 우암 선생께서는 고을의 모든 사람에게 행하게 하여, 지금 風憲과 約正의 집에서는 모두 개 한 마리를 잡고 몇 길의 종이를 묶어 폐백을 삼아 행하고 있다. 서얼이 비록 미천하지만 三加之 예를 어찌 달리하겠는가. 고을에서나 행세하는 풍헌과 약정이 반드시 서얼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고 하셨다.³¹⁾

권상하는 이외에도 서자가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때에 “顯母”를 사용하는 것도 허락하였다. 권상하의 장남인 權煜의 서자인 順性이 어머니 즉 권옥의 소실이 죽었을 때에 “顯母”라고 쓰고 싶어 하자 할아버지인 권상하가 허락하였던 것이다. 권상하가 서자에게 한번 허락을 하자 권섭의 서자 善性도 이 예를 따라 어머니의 제사를 지낼 때에 “顯母”를 사용하였다. 17세기 중반에 가례를 중시하던 권상하 집안에서 첩에 대한 예우, 서자에 대한 예우, 서자의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매우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실행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근거에는 서자를 배려하고 서자의 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庶자가 어미의 신주를 쓸 때에 “亡母라고 써야만 한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順性이 顯母라고 쓰고 싶어 하자 백부 선생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善性도 그대로 따랐다. 내 생각에는, 이미 妣라고 칭할 수 없다면 그 옆에도 다만 '子某奉祀'라고 쓰는 것이 맞다. 내가 초상 치르는 일을 주관하지 않고 선성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한다면 壓尊해야 하므로 '孝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다. 이미 사사로이 할머니의 상을 아비 대신 이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효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다. 예의 의미가 과연 어떤지 잘은 모르겠으나 집안일은 당연히 어른의 생각에 맡겨야 한다.³²⁾

31) 權燮, 『玉所稿』七, <散錄>, “以庶孽冠禮當否, 問於伯父先生, 先生笑而曰, 冠禮責成人之重也, 近來多不行為慨然. 不必廣延賓客, 侈設酒饌. 尤庵先生, 使鄉中人人而行之, 至今風憲約正輩之家, 皆宰一狗為饌, 束數丈紙為幣而行之矣. 庶孽雖賤, 三加之儀, 寧有異同? 懷鄉風約, 非必勝於庶孽也.”

32) 權燮, 『玉所稿』七, <散錄>, “庶子題母之主, 朱子曰, 當書亡母. 順性欲題顯母, 伯父先生許之, 故善性亦取其例. 我曰, 既不稱妣, 則旁題亦只曰子某奉祀, 可也. 吾不主喪, 故

옥소가 서자를 배려하고 서자의 마음을 인정한 배경에는 서자와 서손의 영특함이 있었다. 선성은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여 옥소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樹下金苔生 나무 아래 금빛 이끼가 나고
紅花映草堂(子) 붉은 꽃 초당에 비치네
難同衆卉棄 버려지는 못 꽃들과 같기는 어려운 법
爾獨一庭芳(父)³³⁾ 너만 유독 뜰에서 향기롭구나

愛此新成閣 새로 완성한 누각을 사랑하노니
秋花映竹明 가을꽃이 대나무에 비치어 화사하다
吾生老更喜 내 생애 늙을수록 더욱 즐겁구나
稚子咏詩行³⁴⁾ 어린 아들이 시행을 읊조리니

첫 수는 선성이 8세에 시를 능숙하게 지을 줄 알자 옥소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부자가 연구를 지어 완성한 것이다. 옥소는 선성에 대해 버려지는 못 꽃들과 같지 않다고 하였고, 또 선성만 유독 뜰에서 향기를 뿜는 꽃이라고 비유를 하였다. 옥소가 선성에게 거는 기대가 컸음을 잘 보여준다. 또 옥소는 어린 선성이 시를 읊조리는 것을 보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여 내 생애는 늙어갈수록 더욱 즐겁다고 하였다. 똑똑한 어린 아들이 시를 읊조리는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만족스러움이 잘 드러난다.

一日兼馳數百程 하루 수백 리를 몰아서 달려
入門先喜笑談聲 문에 들어와 웃고 담소하는 소리에 먼저 기뻐하네
休身即可還歸去 쉬었으니 곧 다시 돌아갈 터
父子如情又不輕³⁵⁾ 부자의 정이 같고 또 가볍지 않네

使善性主之，則厭存而不書孝子，可也。既無私祖母承重之義，則不書孝子，可也。未知禮意果如何，而家事當任長。

- 33) 權變, 『玉所稿』十二, <善性八歲, 能解綴詩, 語甚警節, 喜不自勝, 足書圓篇>
- 34) 權變, 『玉所稿』十二, <此善性韻>
- 35) 權變, 『玉所稿』十二, <善兒聞母病奔馳而來, 弟喜色而歸, 題贈一詩>

선성은 적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집안의 인정을 받았다. 옥소의 어머니는 1714년 옥소의 나이 45세에 돌아가셨다. 따라서 이 시에서 병이 든 이는 옥소의 적처이자 선성에게는 적모인 조씨이다. 선성은 적모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리를 달려왔다. 그런데 선성이 문에 들어서자 웃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적모의 병이 위급하지 않음을 느끼고 기뻐하였다. 선성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옥소는 이 상황을 보며 부자의 정이 같고 또 가볍지 않다고 하였다. 옥소의 동생 권영도 문경에 사는 조카 선성이 적모의 병환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수백 리를 달려 온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권영도 서조카 선성의 적모를 향한 효심에 기쁜 마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였다.³⁶⁾ 옥소 가문에서 서자와 서손에 대한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依微村落彼何林 어슴푸레한 촌락, 저 곳은 어느 숲일까
一棹前江泛泛心 앞 강에서 노 저으며 떠다니는 심정
百歲身名非梅汝 백세의 신명도 너를 허물하지 않으리
石臺回處小居深 석대를 돌아가니 깊숙한 곳에 작은 거처가 있네

隱隱村林淡淡山 은은한 마을 숲과 담담한 산
一江流水繞中間 강물 한 줄기가 그 가운데를 도네
長風遠外搖雙帆 긴 바람이 멀리 쌍 돛을 흔들고
幾日歸還望裏閑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 바라보아도 한가롭네

36) 권영은 선성의 효심에 기쁨을 표시한 것처럼 신응의 효심에 대해서도 적극 표현을 하였다. “평소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신고 익숙하게 두루 돌아다닌 곳을 그림으로 옮겨 와유의 재료로 삼는다면 몸소 그곳에 이른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의 형님이 이미 늙어 다시 유람할 수 없으니 신응이 이 幻鏡을 그린 것은 조부의 뜻을 오묘하게 이해했다고 할 만하다.” 권영은 형님이 평소 좋아하던 유람을 나이 들어서 하지 못하게 되자 서손 신응이 그린 그림을 통해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 서손 신응을 “조부의 뜻을 오묘하게 이해했다”고 밝혔다.(권신응의 그림에 대해서는 윤진영, 「옥소 권섭의 소장 화첩과 권신응의 회화」,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참조.)

人家何在出高亭 인가가 어디 있나 높은 정자가 나온 곳인가
 漁子無風泛一船 어부는 바람이 없어 배 한 척을 띄웠네
 立石平臺皆可生 입석과 평대 모두 생생하니
 白雲歸後暮山靑 흰구름이 돌아간 뒤 저녁 산이 푸르네

何區踈散小山虛 어디인가, 쓸쓸히 작은 산이 텅 비었고
 無味原中有別廬 평담한 들판에 별서가 있네
 得趣淋漓看筆勢 흥건한 흥취를 얻고 필세를 보니
 小孫屏畫老人居³⁷⁾ 어린 손자의 병풍, 노인의 거처를 그렸구나

신웅이 직접 작은 병풍을 그려가지고 와서 적조모의 베갯머리에 펼치니 기뻐서 그 그림 뒤에 4수를 짓는다는 제목의 시이다. 여기서 嫡祖母는 권섭의 재취부인인 趙氏이다. 신웅의 親祖母는 小室 李氏이다. 그런데 신웅이 한천장에 거처하는 적조모를 위해 문경 화지장에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병풍을 만들어서 왔다. 옥소는 신웅의 그 마음이 어여뻐 기쁜 마음으로 손자의 그림 뒤에 시를 썼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공동 작품이 탄생하였다. 옥소는 조씨의 묘지명에서 조씨가 “前夫人의 자식과 少室의 자식을 자신이 낳은 덕성의 두 아들인 시웅이나 혜웅 무리와 차이가 없이 돌아보았다고 하였다.³⁸⁾ 여기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적조모와 서손의 관계, 신웅과 적자 집안이 맺고 있었던 관계의 실상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이 병풍은 전하지 않는데 옥소의 시를 통해 신웅의 그림을 유추할 수 있다. 신웅은 어슴푸레한 촌락, 그 앞으로 강이 흐르고, 석대를 따라 돌아가면 깊숙한 곳에 작은 집이 있는 모습을 그렸다. 옥소는 며칠 만에 다시 보아도 한가로움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마지막 그림은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도록 작은 산은 텅 비어 있고 평담한 들판에 별서가 있다. 옥소는 그곳에서 흥건한 흥취를 얻고 비로소 어린 손자가 병풍에 그린 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거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웅이 할아버지

37) 權變, 『玉所稿』二, <信應手畫小屏來, 張于嫡祖母枕邊 喜題四詩其後>

38) 權變, 『玉所稿』五, <墓山二>, <繼配趙氏墓誌>

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곳의 풍광을 담박하게 그려내었던 것이다. 담박하고 여유롭고 은은하고 담담한 모습이 바로 옥소가 추구하였던 거처의 기세였다. 신응은 할아버지의 이 마음을 잘 알아 옥소와 할머니의 거처를 그리고 그 곳을 할머니에게 선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옥소는 다음 시에서 서자와 서손에 대한 애뜻함을 자주 드러내었다. 다음 시는 선성에 대한 옥소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大水中間父子分 홍수 속에 부자가 흩어져
不聞死生雨聲紛 생사를 듣지 못하니 비 소리가 어지럽네
江臯出立青衣僕 강가 언덕에 푸른 옷 입은 종이 나와 있어
知是吾兒倚彼門³⁹⁾ 우리 아이가 저 문에 기대어 있음을 알겠구나

父子終年別 부자가 한 해가 다하도록 이별하니
山村歲亦窮 산촌의 한 해도 다 갔네
事多堆簿裡 장부 더미 속에 일이 많고
年少幾人中 몇몇 사람 중에서도 나이가 어리네
極目天無際 눈을 크게 떠도 하늘은 끝이 없고
裁書月上東 편지를 쓸 때 달이 동쪽에 떠오르네
平生鞠汝意 평생 너의 뜻을 움켜쥐거라
初不在鳴弓⁴⁰⁾ 애초에 활쏘기에 있지 않았지

첫 수는 경상도에 머물며 주변을 여행하던 때 지은 시이다. 그때 홍수가 났는데 옥소는 선성과 떨어지게 되었다. 선성이 왜 홍수 중에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는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때 부자가 서로를 얼마나 염려하고 그리워하였던가가 시 속에 잘 드러난다. 옥소는 홍수 속에서 아들의 생사를 듣지 못하여 비 소리가 더욱 어지럽게 들렸다. 그런데 낙동강을 건널 때 건너편 언덕을 바라보니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바로 선성의 종이였다. 옥소는 선성의 종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곳에서 선성

39) 權燮, 『玉所稿』一, <與善兒, 各行南北, 不知聲息, 渡洛江時, 望見立岸上者, 明是兒之奴, 喜甚有題,>

40) 權燮, 『玉所稿』一, <次善性韻還寄>

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당시의 심정을 시로 표현하였다. 홍수 속에 생사를 알지 못하던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잘 드러난다. 옥소는 선성을 향한 애정을 감추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옥소는 선성의 꿈을 응원하였다. “평생 너의 뜻을 움켜쥐거라”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에 대한 신뢰가 강하게 느껴진다.

吾生老矣今寥落 내 인생은 늙었고 지금은 쇠락하였는데도
 夢裏時間滄海潮 꿈에서 때로 큰 바다의 조수 소리가 들린다네
 却羨阿兒方快事 부러워라, 선아에게 통쾌한 일이 생겼구나
 獨攀孤樹且長謠 홀로 외로운 나무를 더위잡고 또 크게 노래하네
 多心小衛行能健 시기와 의심을 경시하고 덜어야 행동이 건강할 수 있는데
 一出東萊去不遙 한번 동래로 나가더니 멀리가지는 않네
 爾必勿來留待我 너는 반드시 오지 말고 머물며 나를 기다려라
 新晴花柳淨春霄⁴¹⁾ 꽃과 버들이 새로 맑게 피고 봄기운이 깨끗할 때까지

옥소는 선성의 벼슬길을 적극 응원하였다. 서자가 할 수 있는 벼슬에는 분명 제한이 있었으니 적자에 거는 기대와 분명 차이가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옥소는 서자에게 너의 벼슬이 부럽다고 하고 또 서자에게 통쾌한 일이 생겼다고 하여 아들의 벼슬길을 축하해 주었다. 또 옥소는 아들로 인해 이 아버지가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을 전하며 아들에게 거는 기대를 전하였다. 옥소는 늙고 쇠락하였지만 여전히 큰 파도, 조수 소리를 들으며 여행을 다니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한동안 여행을 다니지 못하였다. 하지만 외로운 나무를 더위잡고 노래만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들이 부임을 하게 되었으니 마침내 아들의 부임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성에게 꽃과 버들이 맑게 피고 봄기운이 깨끗해질 때 늙고 노쇠한 자신이 선성을 찾아 여행을 할 수 있을 터이니 돌아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하겠다는 기대를 감추지 않는 아버

41) 權變, 『玉所稿』一, <次善兒寄金生韻>

지의 마음은 아들 선성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옥소에게 선성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하면서 기댈 수 있는 아들이었다.

옥소는 1730년 12월 17일 서자인 선성이 동래부 막비(비장)로 부임할 때에도 장수를 섬기는 마음가짐 8조목을 지어 주며 경계를 당부하였다.⁴²⁾ 그리고 마지막에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동래부 막비에 진실한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명문가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나는 편히 잠잘 것”⁴³⁾이라고 하였다. 서자가 비록 비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그 아들로 인해 옥소 가문의 명예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서자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옥소가 庶子인 善性和 선성의 아들 信應을 향해 늘 “吾兒” 즉 “우리 아이”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였다. 옥소는 서자와 서손을 향해 우리 아이라고 하여 특별히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⁴⁴⁾ 그런데 嫡子인 初性, 德性,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옥소는 또 서자와 서손에게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阿善”, “阿信” 등 “阿”라는 표현도 자주 하였다.

옥소가 庶孫 신응과 그림을 매개로 유독 친밀한 관계를 맺었음은 이전 연구에서도 잘 밝혀져 있다. 그림뿐만 아니라 한시에서도 이 관계는 잘 드러난다. 「與小孫聯句」에서는 어린 손자와 옥소가 연구를 짓는 모습이 보인다.

是處花枝一壑開 이곳 화지에 골짜기 하나 열렸으니
靑松多小小溪廻(信應) 푸른 소나무 약간이 작은 시내를 돌렸네
寒泉倦後還多事 한천장에서 권태롭다가 다시 일이 많아졌으니
一馬知人載去來(翁)⁴⁵⁾ 한 마리 말이 사람 마음을 알아서 실고 오가네

42) 權燮, 『玉所稿』八, <阿善赴萊幕時書贈, 庚戌至月十七日>

43) 權燮, 『玉所稿』八, <阿善赴萊幕時書贈, 庚戌至月十七日>, “事將帥 一心不懈, 必誠必信, 無一毫欺隱, 事有非宜, 不可承順媚諛, 又不可犯分強辯……南來之人皆有曰, 萊府幕裨有人, 真是名家子, 吾亦安眠.”

44) 權燮, 『玉所稿』十二, <信應欲乞竹君試卷書法, 戲題之>, “筆翰何能聽竹如, 別盤蒼頡舊遺餘. 吾兒學術應多悔, 投火徒前錦訣書.”

손자가 화지에 골짜기 하나 열렸고 그곳 작은 시내에 푸른 소나무가 시내를 둘러 서 있다고 짓자, 옥소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손자와의 만남을 표현하였다. 적자가 있는 한천장에서 권태롭게 지낸 후 다시 일이 많아졌는데 말이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옥소를 실어나른다고 하였다. 옥소는 한천장에서 화지로 오는 즐거움을 “말이 사람 마음을 알아 신고 오간다”고 표현하였다. 그의 즐거움의 배경에는 마음에 맞는 서자 선성과 서손 신응의 재능을 어여뻐하는 마음이 있었다. 특히 옥소가 신응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을 견뎌내었음을 노년의 즐거움을 찾았음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소는 서손 신응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이런 손자 신응이 喪妻를 하게 되자 옥소는 절절하게 哀悼의 글을 지었다.

애처롭구나. 나의 서손부의 관이 조재를 행하고 길을 나서니 상여를 끄는 소리 길구나. 늙은 시할아버지 옥소옹이 젊은이들 사이에 섞여 앉았으니 어찌 마음을 가눌 수 있으랴. 상여를 부여잡고 울부짖으며 한 잔을 권하노라. 애처롭구나, 나의 손부야! 나의 정성을 살피시오.⁴⁵⁾

옥소는 손부를 향해 손자를 사랑하였기에 그 지어미도 어여뻐했다고 하였다. 옥소의 신응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난다. 그 손부가 귀녕을 가다가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온갖 방도를 구하며 생을 구걸하였으나 신도 돕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애통해하였다. 더구나 그 즈음 옥소는 딸도 잃었기에 슬픔이 더욱 컸다. 옥소는 이 상황이 자신이 허물을 반성하지 않아 화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후회도 하였다. 손자가 할아

45) 權變, 『玉所稿』一, <與小孫聯句>

46) 權變, 『玉所稿』八, <庶孫婦遺奠時告訣文>, “哀我庶孫婦之柩, 祖載臨塗, 引糾聲長. 老舅玉所翁, 錯英而坐, 何以爲心. 攀輻號咷, 侑以一杯. 哀哀我孫婦, 或鑒我誠. 我愛我孫, 如璋在手. 喜汝仁順, 又憐其婦. 生則妙女, 妍而慧又. 顧復婉孌, 居常左右. 許汝歸寧, 離我日久. 風寒歸路, 感觸爲崇. 千奇百怪, 萬方靡售. 哀哀乞生, 神亦不佑. 呼臯一夕, 與女先後. 石火人世, 其跡如掃. 似我故使, 悔未追咎. 兒扶我老, 哭未盡疚. 涕淚紛如, 摧我腸肚. 佳城指彼, 屋上短阜. 靈辰不淹, 載車如柳. 終天永訣, 酌我一酒. 汝安汝室, 莫奈夭壽. 相持汝夫, 咽咽其舅. 哀哀我孫婦, 其尙歆之.”

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심장을 재촉하는 듯’ 하다고 하며 애통함을 극진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옥소는 손부를 묻으며 “너의 집에서 편안해라, 요절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너의 지아비는 서로 잡아당기고 너의 시아버지는 흐느끼는구나. 안타깝도다 나의 손부여, 부디 흠향하라.”고 하여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 남편이 모두 손부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지극하게 표현하며 애도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손부에 대한 애통한 애도문은 곧 서손 신응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IV. 분재를 통해 본 가족 문화

옥소는 생전에 스스로 자신의 문집 정리와 편집 방향에 관한 글을 기록하고 자식들에게 과제로 남겼다. 이 글에서 주목할 점은 옥소가 자신의 문집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일을 둘째 아들인 德性 부자와 서자인 善性の 부자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 初性の 아들이자 장손인 祧應에게 동시에 맡겼다는 것이다. 옥소가 서자인 선성과 서손인 신응 부자에게도 자신의 문집 정리와 편찬에 참여하도록 명시를 한 것은 평소 그가 서자와 서손의 재주와 공부를 인정하고, 품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두 40권이 넘는 내 글 가운데 <散錄內編>과 <雜儀>와 <雜識>만은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이니 따로 분류해 두는 것이 좋다. <記夢>과 <畫夢>, <歌曲>과 <遊行>, <問答>과 <墓山>, <亭閣> 등의 글은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散錄外編>과 <雜錄>과 <文>, <雜著> 등은 좋은 글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좋고, <筆札>과 <推命紙>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唱酬>는 골라내고 나머지를 버려도 좋고, <程式>은 모두 버려도 좋다. <詩>는 13권 가운데 내가 스스로 골라내어 7~8권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골라내고 또 골라내서 두세 권으로 만든 다음 다시 골라낸 것들 중에 또 정밀하게 골라야만 흠결이 없게 될 것이다.

德性と善性 부자가 祚應과 함께 깨끗이 정돈하여 한 질을 만들어, 전하여 보여 줄 만한 사람에게 전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모두 還紙로 만들어 굴뚝이나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천과 화지에 각각 한 부씩 두되 한천에 둔 것은 道中이 글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잘 지켜서 사당 안에 보존해야 한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글들을 태우려고 했으나 아이들이 만류하여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다. 아, 대대로 글공부를 한 집안인데 나에 이르러 이렇게 노둔하게 되었으니 이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하늘에 묻고 싶어 울면서 슬피한다.⁴⁷⁾

이 글에서 또 주목할 점은 문집 정리와 편집이 끝난 뒤, 적자의 한천장과 서자의화지장에 각각 1부씩을 보관하게 한 것이다. 물론 종손인 道中에게 사당에 잘 간직하라는 당부란 것으로 보아 옥소는 종가에서 종손이 자신의 문집을 잘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자에 대한 기대를 특별히 표현하였다. 그러나 서자의 집인 화지장에도 똑같이 1부를 간직하도록 한 것 역시 주목을 요한다. 문집 정리와 편찬, 문집의 보관과 관련하여 옥소가 당부한 내용은 그가 평소 한시에서 보여주었던 선성과 신용 부자의 능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오래도록 자신의 곁을 지키며 시중을 들고 즐거움을 주었던 서손들에 대한 다정함과 인정과 상통한다.

뿐만 아니라 옥소는 평소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뜻을 잘 따라주었던 서손 신용에게 특별히 서책을 분재하여 주었다. 1743년 옥소의 나이 73세 때의 일이다.

이 글은 문건을 완성하여 주는 일이다. 屏·簇·軸·帖을 여러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너의 아비에게도 약간을 관례에 따라 나누어준 것이 있다. 너는 너의 아비보다 매우 재주가 빼어나고 어려서부터 나를 떠나지 않고 하루종일 곁에서 앞에서 있으면서 손과 입과 눈이 서책의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이 열 대어섯에는 능히

47) 權變, 『玉所稿』, <散錄內篇>, “吾之私稿, 凡四十餘帙, 唯散錄內編雜儀雜識, 有益於後孫, 可分類. 記夢畫夢歌曲遊行問答墓山亭閣, 可勿動而留之. 散錄外編雜錄文雜著, 可抄刪, 筆札推命, 可仍留. 唱酬可抄刪, 程式可全削. 詩則十三卷中, 自抄之作七八卷, 抄中又抄, 為數三卷, 又抄中又精抄, 則可無欠. 德性善性父子, 可與祚應, 梳洗整頓, 而作一帙, 傳示於可傳示者, 餘皆作還紙塗埃壁, 可也. 寒泉華丈, 各置一件, 在寒泉者, 道中雖不學, 亦必善守藏之於祠堂中. 吾欲臨死而焚稿, 為兒童所止, 為此開處置. 嗚呼, 以世代文學之家, 至我身而魯莽如此, 命也奈何? 欲問天而鳴悒.”

나를 대신하여 글을 짓고 책을 베꼈으며 또 때때로 나보다 빼어난 시를 읊어내었다. 산수 그림과 도장 새김은 거의 삼매경에 든 솜씨였으니 나의 늘그막의 소일거리는 오직 너 한 사람뿐이었다. 이에 장차 왼쪽에 몇 건을 기록하여 나의 뜻을 표하고 너의 아버지께 나누어준 것도 여기에 아울러 기록한다. 옛날 우리 청음선생께서 서손 수정을 몹시 사랑하여 맹영광의 「단심국도」 등 이름나고 기이한 완상품을 모두 그에게 주었는데 그의 아들에 이르러 불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으니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너는 명심하여 나의 지극한 뜻을 대대로 잘 지키고 저버림이 없도록 하라. 승정후재계해(1743) 12월 초길에 조부 옥소옹. 48)

옥소는 선성에게 관례에 따라 분재를 해 주었다. 그러나 신응에게는 그의 효심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분재를 해 주고자 하였다. 신응은 옥소의 곁을 하루종일 떠나지 않으며 공부를 하여 15,6세가 되었을 때에는 옥소를 대신하여 시를 짓고 책을 베낄 정도가 되었고, 때로는 옥소보다 더 나은 시를 지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응은 산수화와 전각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보였다. 옥소는 신응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노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이에 옥소는 73세에 분재를 할 때 신응의 효심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였다. 동시에 할아버지의 서손에 대한 사랑과 분재가 옥소만의 특이한 사례가 아님을 말하였다. 이는 뒷날에 딸이 생길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뜻도 있었을 듯하다. 이미 청음 김상헌이 서손 壽徵을 사랑하여 기이한 물건들을 모두 수정에게 분재하여 준 일이 있었던 것이다. 옥소는 청음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서손에 대한 분재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옥소는 수정에게 분재한 것이 그의 아들에 이르러 모두 불타버리

48) 權燮, 『玉所稿』十五, <小孫信應處成文>, “右文爲成給事. 屏·簇·軸·帖, 分俵諸子之時, 亦有若干例分於汝父者矣. 汝則絕才勝於汝父, 而自幼不離於我, 終日夜在傍在前, 手口與目, 不越乎書冊之外. 年十五六, 能待我裁書寫冊, 又時時咏出勝我之詩. 山水之畫, 圖章之刻, 幾得三昧手段, 我之暮境消遣, 惟汝一人. 茲將左錄諸件, 以表我意, 汝父所分亦并錄于此. 昔我清陰先生, 甚愛庶孫壽徵, 盡以孟英光丹心菊等名奇之玩與之, 至其子而燒燼無餘, 天下事不可知者. 有如此, 汝則念之世世善守無負我至意. 崇禎後再癸亥臘月初吉 祖父玉所翁.”

고 말았다는 점을 명시하며 경계를 하였다. 할아버지가 분재해 주는 지극한 뜻을 잘 지키고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

옥소가 신응에게 분재하여 준 것은 屏 4, 簇 5, 軸 3, 帖 30이다. 뿐만 아니라 서적도 126冊 분재하여 주었다. 옥소가 신응에게 준 서책 목록은 “鑄字四書三經二十一卷, 史鉞一 古文百選四, 琴譜三, 東醫寶鑑十六, 經驗方一, 海東遺珠一, 心經二, 東遊師友錄十, 簡齋集一, 巷東稿一, 寒水簡稿一, 村隱集一, 龜谷集二, 詩學大成一, 匣十冊, 左傳文定一, 匣十二冊, 字彙一, 匣十四冊, 喪禮備要一 野言一, 棠堃誌狀一, 增補韻考一, 龜峯集一, 要覽一 雜誌一 譜牒二 家乘一 神禹碑一 寒水年譜一 擊蒙要訣一, 杜律一, 義烈圖一, 剪燈新話二, 付信應, 即合屏四, 簇五, 軸三, 帖三十, 冊一百二十六.”⁴⁹⁾ 등으로 유가 경전류, 시문류, 의서류, 유서류, 족보류, 문집류, 운서류, 소학류 등 분야가 다양하였다. 126책이라는 양도 결코 적지 않은 양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책을 분재하여 준 사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옥소가 서손 신응에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상당량 물려주었다는 것은 그의 서손 신응의 재능에 대한 인정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가를 잘 알 수 있다. 신응에게 나누어준 책 이외의 것은 모두 적손 조응이 주관하도록 하였다.

서책 중 신응에게 나누어 준 것은 이미 글로 남겼으니 나머지는 모두 조응이 주관을 하여라. 한천과 화지를 번갈아 왕래한 것은 각자 찾아서 가져가라. 그밖에 병풍과 족자 등 한천과 화지에 있는 무릇 온갖 물건은 각자 옮기지 말고 각자 잘 지켜라. 내가 지은 초고는 두 건으로 꾸며서 한 건은 한천에 두고 한 건은 화지에 두어라. 각 집의 맏아들이 혹시 글을 알지 못하는 자라서 다른 자손에게 내어주어 가지고 가서 보게 하면 혹 벽을 바르거나 불타서 훼손되는 일도 불가한 것이 아니다.⁵⁰⁾

49) 權變, 『玉所稿』十五, <小孫信應處成文>

50) 權變, 『玉所稿』八, <示兒輩文>, “書冊之分與信應者已有文, 而餘皆祚應主之. 其迭往來於寒泉花枝者, 各自推去. 其外屏簇等凡百物件之在寒泉花枝者, 各自不動, 各自善守. 吾之所述草稿 粧成兩件, 一置寒泉, 一置花枝. 各其長派, 如或不知書者, 出他子孫, 持去看之, 或塗壁或焚毀, 亦無所不可.”

옥소는 서책뿐만 아니라 집안의 물건을 분재할 때에도 적자와 서자 집안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주었다. 문집을 두 권으로 만들어 한천과 화지에서 각각 한 권씩 보관하게 한 것은 앞에서도 이미 밝혔다. 문집뿐만 아니라 서손 신응에게 줄 책의 목록도 따로 정리하여 글로 분명하게 남겨 주었다.⁵¹⁾ 적자 집안에서 모든 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서자 집안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외의 책은 모두 장손인 조응이 한천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한천과 화지에서 각각 소유한 것인데, 현재 상대방에게 가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 즉시 찾아서 가져가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적자와 서자 집안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었다. 또 병풍이나 족자 등 모든 물건은 한천과 화지에 있는 그대로 두고 각자 지키고 옮기지 말라고 하였다. 한천과 화지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은 각 집에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옥소가 화지에서 사용한 것은 적자 집안에서 가져가지 말고 화지에서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옥소는 이렇게 한천의 적자와 화지의 서자 집안의 소유권을 각각 인정하여 주었다. 적자 집안이 무조건 우위를 가지고 서자 집안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때에도 옥소가 염려한 것은 각 집의 맏아들이 글을 몰라서 서책을 다른 집안에 내어주게 되면 그 책은 벽을 바르거나 불에 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옥소는 집안 후손들의 학문적 쇠락을 쉬임없이 걱정하였다. 그런데 이때에도 적자 집안뿐만 아니라 서자 집안에서도 맏이가 글을 알아야 한다고 동시에 강조하였다. 옥소가 자손의 학문에 대한 기대를 표현할 때, 적서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재산을 분재할 때에도 서손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51) 권섭은 신응에게 준 서책과 필첩의 목록을 기록하였다.(權燮, 『玉所稿』, <小孫信應處成文>) 여기서 그림은 68점을 소장하였고 그 중 선성에게 奏再奚가 그린 <獨樂園圖> 1점, 덕성에게 李澄의 <瀟湘八景圖>와 權尙夏의 <畫竹> 등 2점, 신응에게 외조부 이세백에게 받은 중국본 <西園雅集圖>와 卞良의 <虎>와 여러 사람이 그린 <扇畫帖> 등 3점을 주었다. 나머지는 모두 적자 집안에서 보관하게 하였다.

이 글은 문건을 작성하여 주는 일이다.

너는 일찍이 신응을 낳았으니 그 형모와 심지와 성행이 나와 닮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신응을 사랑함이 여러 자손과 달랐고 신응이 나를 사랑함도 여러 자손들과 아주 달랐다. 그래서 신응은 날마다 와서 내 품을 떠나지 않았다. 일념으로 마마가 올까 근심하였는데 다섯 살에 깊어졌다가 기분 좋게 마마가 지나갔으니 사랑함이 더욱 심해졌다. 오직 나의 능강동과 화지의 여러 손자 중 오직 신응만이 반드시 나의 뜻을 체득하고 맑음으로써 잘 지킬 것이니 청여허정 한 칸,賢자 탁나무밭 아홉속곳을 본문기와 아울러 너에게 주니, 너는 내 뜻을 알고 신응에게 전할 것.⁵²⁾

이 글은 문건을 작성하여 주는 일이다.

너는 늙은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 아들인데 너의 아버지께 출계하였다. 나이 서른에 가깝도록 자식이 딸만 셋이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홀연히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덕성이 사내아이를 낳아 육십을 바라보는 늙은이가 비로소 손자를 안아보게 되었습시다.”라고 하였다. 붓 끝에 기쁜 색이 넘쳐흘렀으니 오직 우리를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장차 능강동 賢자 탁나무밭 한짐을 본문기와 아울러 주고 만풍각 한 칸과 한천의 백취정 농막을 주니 능강동 한천장의 샘과 돌, 구름과 물의 즐거움은 늙은 아버지가 만년에 생계를 꾸린 곳이다. 너는 늙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아들에게 전하고 잘 보호할 것.⁵³⁾

선성에게 준 분재 목록으로 1732년 5월 2일에 기록한 것이다. 옥소의 나이 62세의 일이다. 옥소가 선성에게 分財를 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은 바로 ‘신응을 낳았다’는 점이었다. 옥소는 선성이 낳은 신응이 옥소 자신과 닮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였다. 옥소는 선성에게서 또

52) 權變, 『玉所稿』十五, <善性別給文 壬子五月二日>, “右文爲成給事. 汝早年生申應, 其形貌心志性行, 無一不肖於我. 我愛申應, 不同諸孫, 而申應之愛我, 又絕異於諸孫. 故申應日來, 不離我抱中. 其一念憂痘至, 五歲長而深深, 今好好經痘, 佳愛益甚. 唯我凌江丘壑諸孫中, 唯申應必將體我志, 而善守之, 以清如許亭一間, 賢字楮田九束庫, 并本文一度, 與之汝, 汝知我意, 傳之于申應事.”

53) 權變, 『玉所稿』十五, <善性別給文 辛亥至月二十五日>, “右文爲成給事. 爾以老父之鍾愛子, 出後於爾翁, 年近三十而所生連三女, 爾翁忽然馳書來曰, “德性生男子 望六翁始抱孫矣. 筆端之喜氣洋溢, 唯余老父之心, 何以識之. 將凌江洞賢字楮田一卜, 并本文一度, 晚風閣一間, 與寒泉之百趣亭晏廬以與之, 凌江寒泉石雲水之樂, 爲老父晚暮身計, 爾體老父之志, 傳之子而好好護守事.”

다른 자아를 보았던 듯하다. 그리하여 옥소는 손자 신응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손자들과 달랐다고 직접 명시를 하였다. 그리고 손자 신응 또한 옥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손자들과 달랐음을 특별히 인정하였다. 옥소가 신응을 어여뻐하였다는 것은 이미 옥소가 신응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후원을 하는 과정, 옥소가 꿈을 꾸고 신응에게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 과정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옥소가 신응을 어여뻐하였음이 일상생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과정에도 반영되었다. 조선시대의 가부장제가 17세기 중엽부터 경화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변화한 점의 하나는 가문의 재산을 적장자에게 몰아주어 가문의 부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적장자를 제외한 차남 이하의 자손은 점점 더 분재과정에서 소외되어 갔다. 그런데 옥소는 분재를 할 때에도 서자 선성에게 평소 자신이 어여뻐하였고 또 자신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하였던 서손을 위해 서자 선성에게 재산을 분재하고 이 점을 명쾌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옥소의 진심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는 과정에도 반영이 되었음을 통해 옥소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옥소가 선성에게 “淸如許亭 한 칸을 물려주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곳은 문경 화지장 주변이 아니라 청풍 제천 松楸 아래에 있으니 즉 옥소의 적자들이 살던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일부를 옥소는 선성에게 물려준 것이다. 즉 옥소는 서자에게 문경뿐만 아니라 제천의 땅도 물려주었다. 또 이곳은 옥소가 평생 잊지 못한 벗 재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또 정자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재문, 재문의 형, 우암 송시열, 백부 권상하와 인연이 얽힌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⁵⁴⁾ 그곳을 옥소는 선성에게 물려주었다.

옥소가 덕성에게 물려준 百趣亭도 특별한 곳이다. 李泰가 지은 시⁵⁵⁾

54) 權燮, 『玉所稿』16, <夢記·聖則夢說記>

55) 權燮, 『玉所稿』十六, <題百趣亭 戊子夏日>, “背市幽居得一丘, 傲巖新作亦高樓. 低山不斷圍平野, 近水無派汎大舟. 幾態風烟供晚景, 半生詩律送閑愁. 看君用志迂疎甚, 名利非爲分外求.” 이 시는 李泰가 지은 것으로 『玉所稿』에 실려 있다.

를 보면 백취정은 옥소의 나이 39세인 1709년에 새로 지어졌다. 권상하도 1721년 옥소에게 백취정에 관한 시를 지어주었다.⁵⁶⁾ 신응은 백취정을 그림으로 그렸다.⁵⁷⁾ 옥소의 호인 百趣翁도 이곳과 연관이 깊다. 이곳을 옥소는 덕성에게 분재하고 별급문을 지어 주었다. 1731년의 일이다. 덕성에게 먼저 별급문을 지어주고 그 이듬해에 선성에게 별급문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1743년에 신응에게도 분재기를 작성하여 주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文翰으로 이어져 내려왔으니 나도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집안의 명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내 장손의 자손들은 文彩가 없으니, 지금 祚應의 세 아들이 모두 공부를 하지 않아 아는 것이 없다. 내가 몹시 걱정이 되어 책망을 그치지 않았으나 그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를 따라 독려하려는 생각이 없으니 이 무슨 이치란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조선이 건국된 지 3백년 이래로 관직이 이어졌지만 그 사이에 성함과 쇠함의 이치가 없었겠는가. 지금 이와 같음은 괴이할 것도 없으니 그 아버지는 통달한 사람인가 보다. 태사공도 후손 10여 대에 걸쳐 관직에 오른 자가 없었으며, 국초의 戶長이나 別將 집안도 지금은 천시할 것이 아니지만 혁혁한 것도 아니다. 한 번 드러나고 한 번 잠김은 단지 맡은 대로 해야 할 따름이니, 어찌 고달프게 하늘의 뜻을 여기면서 억지로 하겠는가. 나는 지금부터 학업을 엄격하게 독려하지 않으려 한다. 혹 대부가 되고 혹 평민이 된다 해도 꺼릴 것이 있겠는가.⁵⁸⁾

옥소는 장자 初性の 이른 죽음 이후 장손과 증손들에게 학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기를 기대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끝내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옥소 자신도 젊은 날 과거를 하지 않았는데

56) 權變, 『玉所稿』十六, <寄題百趣亭 辛丑七月>, “閑情百種誠多趣, 仰面回頭不奪難. 一事能爲眞箇樂, 案中牙軸炷香看.” 이 시는 權尙夏의 것으로 『玉所稿』에 수록되어 있다.

57) 權變, 『玉所稿』一, <小孫信應畫百趣亭於便面喜題一詩>

58) 權變, 『玉所稿』, <散錄內篇>, “吾家以文翰繼世, 吾雖魯莽, 亦不至於全失家聲. 吾之長派子孫無文, 而今祚應之三子, 則皆不學無識. 吾甚愍然, 不住呵責 而其父落落, 無承順勸課之意 是何天理? 坐而思之, 國朝三百年來, 簪組相繼, 則亦豈無否泰之理乎? 今無怪其如此矣, 然則其父是通達之人耶. 太師公後十餘代, 無官爵, 國初之戶長別將, 皆非今之賤下而煥爛則未也. 其一顯一替, 只當任之而已, 何苦逆天而強之哉. 吾自今不欲嚴加程督矣. 其或為大夫, 或為常漢, 亦何妨也.”

이 문제는 숙부 權尙游에게 큰 질타를 받을 정도로 집안에서도 문제시 되었다. 백부 권상하는 옥소의 과거 급제 문제에 관대하였으나 숙부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옥소는 막상 자신의 자손들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학문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상심을 하였다. 옥소의 장손에 대한 실망감은 기대가 컸던 만큼 더 강하게 표현되었던 듯하다. 그렇다면 옥소 역시 가문을 일으키고 명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장손에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옥소의 서자와 서손에 대한 인정과 다정함은 장손 祚應과 그의 세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대비된다. 그러나 옥소의 서자와 서손에 대한 인정과 다정함이 적자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진 가부장제의 이 경계마저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다음 글은 황강의 서족이 적자를 능멸하고 업신여기는 문제에 대한 옥소의 대답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황강의 서족이 적자들을 능멸하고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이 짝이 없을 정도라고. 높고 쇠잔한 사람이라 가장의 도리를 행할 수 없고 또 두려워할만한 명성과 지위가 없으니, 어찌 유독 서족만 나무라겠는가? 힘이 제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한결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의리를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겠는가? 아이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애써서 우뚝하게 공부를 하게 하여 명사가 되고 재상이 되게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단지 후회스러운 일은 내가 젊어서부터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하는 일에서 퇴보한 것이다.⁵⁹⁾

옥소는 적자가 명성과 지위가 없으니 서족이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 명사가 되고 재상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옥소 자신도 젊어서 과거를 폐하고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포기하였지만 늙어서는 이 일을 후회하였는데, 정작 적자가 서자에게 무시당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욱 이 일을 후회하게 되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59) 權燮, 『玉所稿』八, 「庶族說」, “人多言黃江庶流之凌踏嫡黨無雙. 老孱之人, 不能行家長之道, 又無名位之可憚, 何獨訛於庶族. 力不能制, 則安以受之一存和睦之義? 爲可使兒輩孜孜, 兀兀而爲學, 爲名士爲宰相, 則自爾無此事矣. 只悔我之自少退步於科宦.”

것을 느꼈고 후손들도 그것을 느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자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적자와 서자의 갈등에서 옥소의 해결책은 둘이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서자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위와 명성을 갖추라는 것이다. 여기서 옥소가 적자에게 거는 기대가 서자에게 거는 기대와는 분명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적자 중심의 사회에서 서자를 완전히 분리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적장자 중심이긴 하되 서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옥소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여기서 18세기가 가문중심, 적자중심의 사회이긴 하지만 서자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V. 마무리

본 연구는 玉所 權變(1671-1759)의 가문을 통해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와 가족문화의 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현재 학계에서는 옥소가 생존하였던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에 가부장제가 嫡長子中心으로 硬化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옥소 가문을 살펴보면, 과연 이 시기 조선사회의 가부장제가 적장자중심 일변도였던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옥소는 자신이 사후에 묻힐 자리에 초취부인과 재취부인의 자리는 두었으나 소실의 자리는 두지 않았다. 또 적자의 자손에게 가문을 일으킬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옥소 집안에서 소실과 소실 소생들을 대하는 방향은 적장자와 분명한 차별을 두면서도 가부장제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으로 가문의 일원으로 이끌었다. 옥소는 소실 이씨와 60여 년을 함께 하였고 재취부인 조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약 30여 년을 소실 이씨와 함께 하였다. 또 옥소는 노년에 서자인 善性和 서손인 信應에 의지하는 바가 매우 컸다. 그래서 분재를 할 때에도 선성과 신용에게 그들의 효도와 재능을 인정하며 서책, 예술품, 전답을 나누어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17세기 중엽 이후 18세기 중엽까지의 조선사회의 가부장제, 가족문화의 실상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 가문 내부의 다양한 문화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옥소 가문의 가족 관계를 통해 17세기 중엽 이후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저변에 다양한 가족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주목하는 계기를 열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玉所稿』, 다운샘, 2007.
- 권섭 저, 이창희·장정수 옮김, 『옥소산록』, 도서출판 다운샘(근간).
-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86, 1~174쪽.
- 이창희 외, 『18세기 예술 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 이창희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 이창희 역주,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강혜선, 「옥소 권섭의 기행시문 연구」,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2010.
- 안세현, 「조선후기 상상의 공간을 소재로 한 기문의 창작 배경과 특징」, 『한국고전 연구』 27, 2013.
- 윤진영, 「옥소 권섭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한국학』 3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윤진영, 「옥소 권섭의 소장 화첩과 권신응의 회화」, 『장서각』 2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장정수, 「옥소산록(玉所散錄)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영남학』 3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2.
- 최호석, 「옥소고 소재 몽화의 제작에 대한 연구」, 『역사민속학』 28, 2008.
- 최원석, 「조선후기 지식인의 풍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일고찰」, 『민속학연구』 18, 국립민속박물관, 2006.

Family culture in the 18th century with Oakso(玉所) Gwon-Seop(權燮)

Park, Yeong-min

This study examined aspects of patriarchy and family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from the mid-17th century to the mid-18th century through the family of the Oakso(玉所) Gwon-Seop(權燮). Currently, academia says that from the mid-17th century to the mid-18th century, when Oakso survived, the patriarchal system was harden into the legitimate child(嫡長子). However, if you look at the Oakso fami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atriarchal system of Joseon society during this period was a one-sided the legitimate child(嫡長子). Oakso had the seats of his wife in the place where he would be buried after his death, but did not have the seats of concubine. It also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to raise a family to the legitimate child. However, the direction of dealing with the concubine and child of a concubine of the Oakso family clearly discriminated against the legitimate child, but it was not driven out of the boundaries of the family. Rather, he was very active in leading the family. Therefore, in order for us to properly approach the reality of patriarchy and family culture in Joseon society from the mid-17th century to the mid-18th century, we must be able to capture and explain various cultures within each family in detail. This study attempted to open an

opportunity to note that various family cultures existed at the base of the patriarchal system of the Joseon Dynasty after the mid-17th century through the family relations of the Oakso family.

keywords :

Oakso(玉所), Gwon-Seop(權變), Family Culture, concubine, child of a concubine, legitimate child, the patriarchal system.

